

Chapter 03

(복)무지개공동회 엠마우스산업

세상을 아름답게! 삶을 행복하게!

(북)무지개공동회 엠마우스산업

대표자 문성극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808 (안청동)

전화번호 062-951-6920

유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사회적기업(제2008-15호)

인증 친환경표지 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사회적기업생산품

홈페이지 www.emmausi.com

주요생산품/서비스 화장지, 핸드타월, 양초

기업연혁

- 1991 엠마우스복지관 부설 엠마우스보호작업장 개소
- 199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가
- 2001 공장 증축. 화장지 상표등록(행복예감)
- 2003 화장지 상표등록(동그라미)
- 2004 점보롤 기계설치
- 2008 사회적기업 인증(노동부장관 제2008-15호)
- 2009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 2014 인천국제공항 점보롤 화장지 낙찰 및 공급
- 2017 광주형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제2017-2호) 선정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이른 아침 자바라 컨베이어 위로 대형 물류트럭에 상품을 적재하는 손길들이 바쁘다. 트럭에 실리는 상품은 다름아닌 점보롤화장지. 적재가 완료되면 트럭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예정이다.

광주 하남 제3공단에 자리잡은 엠마우스산업은 화장지와 핸드타월, 양초(가톨릭 전례초)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언뜻 보면 일반 공장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1~3급 발달장애인들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모두 40명.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비장애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엠마우스산업은 당초 1991년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엠마우스복지관 부설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문을 열었다. 설립자인 아일랜드 출신 가톨릭사제 천노엘 신부의 뜻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정에 갇혀있던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인간으로서의 일할 권리를 찾아준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설립과 함께 가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양초를 주로 생산했으나, 워낙 작은 규모에다 생산성도 낮았다. 하남공단 내 다른 기업의 하청을 수주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조차 버거울만큼 경영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2차에 걸친 공장증축과 컨설팅, 생산설비의 도입으로 화장지를 생산하면서 현재는 연 30억 매출을 올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끊임없는 설비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을 추구하면서, 지역을 벗어나 전국으로 판매망을 넓히려 했던 직원들의 노력이 숨어있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친환경인증 등 납품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인증을 취득하여 입찰조건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엠마우스산업이 생산한 점보롤화장지와 핸드타월은 나라장터, 학교장터, 한국공항공사 등을 통해 전국의 국가시설과 공공기관, 학교에 공급되고 있다. 권역별 전담 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해나가는 공격적 마케팅이 성과를 낸 것이다.

엠마우스산업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근로작업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일반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출근하고, 비장애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근로환경에서 당당하게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책무라고 여기고 있다.

엠마우스산업이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영원칙은 법인의 설립이념인 '정상화원리'다. 장애인들 역시 정상적인 사회원리에 맞춰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출퇴근과 근무, 여가생활 등 모든 면에서 일반인들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자립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30여년에 이르는 기업의 역사 속에서도 엠마우스산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거치면서다.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향상시키는 물론, 회사의 대표상품을 화장지 제품군으로 설정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기업의 상을 만들어 나갔다. 40명의 발달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기쁨을 느끼면서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하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몇몇 직원들은 입사 후 꾸준히 급여를 저축해 주택을

구입하고, 결혼해서 가정도 이뤘다.

이들 장애인들의 행복은 곧 부모와 가족 모두의 행복이기도 하다.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없었던 자녀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들은 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이들은 엠마우스 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생산직원 부모모임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자녀들이 직장생활의 즐거움과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다.

2017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엠마우스산업은 지원금을 통해 제품포장과 운반설비 등을 확충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 문성극 대표는 ‘발달장애인들이 삶을 더욱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최고의 직장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북)무지개공동회 엠마우스산업
문성극 대표

엠마우스산업은 1991년 설립됐다. 하남산업단지가 조성될 무렵이었다. 어느새 27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된 것이다. 문성극 엠마우스산업 대표는 인터뷰 첫머리에서 ‘정상화원리’를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복지시설에 모여 공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해요. 정상화원리란 장애인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본래 모습 그대로 순리대로 지켜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거와 일터 모든 곳이 정상적인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일하는 곳은 당연히 공단에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곳에 공장을 마련한 겁니다.”

문성극 대표가 엠마우스산업의 대표를 맡게 된 것은 1997년부터다. 당시만 해도 독립된 기업이 아닌 엠마우스복지관에 소속된 직업재활작업장이었다. 가톨릭 의식에 사용하는 양초를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배용 폴, 카네이션, 행주 등 많은 품목들을 제작했으나,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일거리가 아님을 확인하고 꾸준히 직종개발을 했다고 한다.

현재 엠마우스산업이 주력 생산하는 제품은 화장지다. 두루마리 화장지와 점보롤, 그리고 핸드타월 등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한다. 거래처는 약 1,000여개 공공기관과 학교, 경찰서, 공항 등으로 전국 단위다.



전국 단위로 판매망 확대해 발달장애인 40명 고용

설립 이후 꾸준히 고용인원을 늘려온 현재 엠마우스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모두 40명이다. 모두 생산직 노동자인 이들의 인건비만해도 연간 8억5천만원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당연히 예상된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사실 회사 내부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임금은 어차피 영업이익에서 충당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2019년에는 매출목표를 40억으로 상향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화장지는 제품의 부피가 큰 반면 이익은 적게 나는 이른바 생활 밀착형 박리다매 상품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제조업체도 많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때문에 문 대표는 대량구매처를 공략하는 지역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영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판매수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영의 부담이 매우 크다.

“여러 품목들에 도전을 해봤습니다만 발달장애인들이 일하기에 적합한 품목들이 있어요. 제조공정이 비교적 간단한 화장지가 그런 품목이죠. 지금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을 좀 더 올려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또한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해서 국가가 특별히 구매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생산하기 적합한 품목 지정하고 공공구매비율 끌어올려야

엠마우스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가톨릭교회에 납품하는

전례용 양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일반인의 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화장지는 오로지 장애인의 힘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특정한 공정은 ‘오히려 장애인이 더 잘한다’고 문 대표는 설명했다.

“포장하는 공정을 보면 비장애인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숙련돼 있어요. 몸에 리듬을 실어서 일을 하거든요.”





엠마우스산업은 입사 조건을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장 큰 목표는 더 많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회사의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을 고용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경영전략이다. 직원들의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 12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간 근무해온 장애인들은 덕분에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직장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생산직원들이 여기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합니다.”

회사에는 넓은 휴게실과 쾌적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있다.

회사는 이들에게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 상담을 비롯해 음식, 풍물, 등산 등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지만,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돕는 것이 회사의 역할이라는 점을 문 대표는 잊지 않고 있다.

임금 높이기보다 장애인 고용 확대가 회사의 목표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크다고 문 대표는 토로했다. 근로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원자재가격과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목표는 임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장애인 부모들도 자녀들의 월급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공장 가동을 못하게 되면 결국 장애인들이 일터를 잃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때문에 회사로서는 고용을 현 수준으로 동결할 수 밖에 없다고 문 대표는 토로했다. 결국은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열쇠라는 생각에 2019년에는 보다 많은 매출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인 자신부터 영업을 통한 매출목표를 3억원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인권의식이 상당부분 개선된 근래에 와서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은 존재한다. 장애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문 대표는 더욱 제품의 품질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화장지는 두꺼울수록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화장지라는 게 돌돌 말리는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기계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20~30미터를 줄여서 감는 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이 생산한 다른 제품들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선도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법 고민

2017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문 대표는 생각이 많아졌다고 한다. 선도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다.

“선도기업으로서 지역 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푸드마켓이나 양로원에 화장지를 기부하거나 연탄나눔 같은 사회서비스를 해왔지만, 선도기업이 해야 할 몫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산직원들이 장애인들이라보니 받는 것에 익숙한데, 자기 몫을 내놓는 연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곧 삶의 질 향상이라고 믿는 문 대표는 직원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생활로 이끌어냄으로써 기업의 이념인 ‘정상화원리’를 실천하고자 늘 고심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우리 제품 납품했을 때 뿌듯했어요

점보롤사업장
이종원씨

점보롤사업장에서 제품 포장을 맡고 있는 이종원(35)씨. 그가 엠마우스산업에 입사한 지도 어느새 14년이 됐다. 부산출신인 그는 12살에 광주로 이사를 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1살에 엠마우스산업에 입사했다. 오랜시간 일해온 만큼 작업현장에서는 그의 숙련된 솜씨가 빛난다. 빠른 속도로 제품을 포장하는 그의 몸놀림에는 신명이 있었고, 표정은 밝았다.

“엠마우스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동생 학비도 마련해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그가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며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이가 바로 부모님이라고 한다. 이종원씨는 근속년수가 긴 만큼 동료들 중에서도 급여가 많은 편이다. 동갑내기 여자친구도 있어 앞으로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불편한 건 없냐는 질문에 그는 또박또박 힘이 넘치는 말투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홀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그는 언젠가 회사동료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점보롤을 납품했던 일을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꼽았다. 회사의 특성상 외부에서 공장견학을 오는 이들이 많은데, 그 때도 종원씨는 앞장서서 본인의 작업을 설명하길 좋아한다고.

누구보다 즐겁고, 신나게 일하는 종원씨는 “다른 장애인들도 자신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행복하게 일하길 바란다”며 퇴직 후 고향에 좋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꿈을 전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직장동료들이 있어서 좋아요

양초사업장
박재성씨

지난 2011년부터 엠마우스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박재성(41)씨. 가톨릭 전례에 사용되는 봉헌초를 만들고 있다. 그는 이곳에 입사하기 전 하남공단의 기업 2곳에서 일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처음 갔던 곳은 돈을 적게 주면서 너무 많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퇴사했어요. 그 다음에 간 곳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못 참고 퇴사했어요. 반말을 하거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아 마음이 아팠어요.”

엠마우스산업에 입사한 후로 그런 일은 없었다. 급여도 만족했지만 무엇보다 실수를 해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이해해주는 배려가 고마웠다. 회사생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하니 살아오면서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했다.

아직도 휴일에 일반인들을 만나는 게 꺼려진다는 재성씨는 동료들과 영화를 보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다고 한다. 회사에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는 일하면서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저축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다.

“장애인이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표정도 어둡고, 감정을 표현에도 서툴렀다는 그가 지금은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회인이 돼 있었다. 생활의 안정과 일하면서 쌓인 자신감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 이리라.

엠마우스집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이곳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무지개공동회 엠마우스산업 상품



▲ 화장지 (행복예감, 동그라미)



▲ 핸드타올



▲ 양초

